

지난 8월 19일부터 21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OPEC(石油輸出國機構)임시총회가 油價單一化에 실패한 뒤를 이어 세계 최대産油國인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 1일부터 産油量을 하루 10%인 1백만배럴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우디의 産油量감축이 우리나라 原油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체 原油도입량의 60%를 사우디에 依存하고 있으나, 모두 1년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해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우디의 減産이 세계原油需給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가 原油수급전망을 토대로 사우디 減産의 영향을 試算한 결과를 보면, 다른 産油國의 생산량이 변동이

제네바OPEC臨時總會 이후의 世界石油情勢

없을 경우, 내년 3月中순에 가면 세계의 原油과잉 재고가 소진되어 수급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自由世界의 石油需要는 금년 3/4分期에 하루 4천 6백만배럴. 이에 대해 供給은 OPEC의 생산량인 하루 2천 2백만배럴을 포함하여 4천 4백 40만 배럴로 하루 1백 60만배럴의 供給不足을 나타내고 있다. 9월부터 사우디가 하루 1백만배럴의 減産을 단행했으나 다른 産油國의 생산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 3/4分期중의 供給부족은 사우디의 9月分 減産을 포함하여 하루 1백 93만 배럴이 될 것이다.

한편 3/4分期이후의 自由世界의 原油비축은 판매에 필요한 러닝·스톡스를 포함하여 53억 8천 8백만배럴이 되는데, 이중 10억 2천 8백만배럴이 당장

生産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過剩在庫가 될 것이다. 3/4分期中의 供給不足分 하루 1백93만배럴×92日分은 과잉재고를 잠식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아 3/4分期末의 과잉재고는 8억5천만배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계산상으로 보면, 原油供給은 부족되고 있는데도 供給不足感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先進 소비국등 대부분의 석유소비국들이 대량의 석유 비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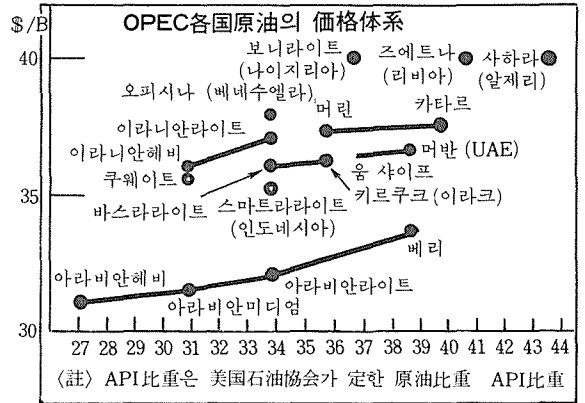
이어 오는 4/4分期에는 需要 하루 4천9백만배럴에 대해 供給은 사우디의 減産을 반영하여 하루 4천3백60만배럴로 결국 하루 5백40만배럴의 공급부족이 된다. 이 92日分, 즉 4억9억6백80만배럴이 過剩在庫의 잠식분이 된다. 그 결과 금년말의

石油나 代替에너지에의 전환을 급속도로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무려 1천8백억배럴이라는 세계최대의 推定原油埋藏量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인만큼, 가급적 이것을 장기간에 걸쳐 유효적절하게 이용하고 싶은 것이다.

사우디의 長期戰略은 보유자원량이 적은데다가 경제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産油国에는 수락될 리가 없다.

이 점이 바로 OPEC 내부의 対立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나 현재의 市場상황은 原油高價格国에 대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면, 배럴당 40달러의 공식판매가격을 내세우고 있는 나이지리아등 아프리카 4個国은 1/4分期에 비해 하루 2백만배럴 이상을 減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한다. 또

日本 에너지經濟研究所가 사우디 減産의 영향을 試算한 결과는, 다른 産油国의 生産量이 변하지 않을 경우 来年 3月이면 세계 原油과잉在庫가 消盡되어 需給의 均衡을 이룰 것이라 한다.



過剩在庫는 3억5천3백만배럴이 된다.

또 82년 1/4分期에는 수요가 하루 5천50만배럴인데 대해 供給은 하루 4천5백80만배럴로 하루 4백70만배럴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90日分인 4억2천3백만배럴만 過剩在庫를 잠식하게 된다. 그 결과 내년 3월중에는 자유세계의 과잉재고는 모두 소진되어 수급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우디는 石油政策에 대해 장기적인 眼目에서 현재의 OPEC의 石油價格이 평균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으나 8월의 제네바 OPEC임시총회에서는 그래도 基準價格을 34달러까지 인상하겠다고 양보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을 OPEC內的 강경파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사우디는 原油價의 지나친 引上이 소비국의 脱

지난 번의 제네바 OPEC임시총회가 油價單一化에 실패한 이상, 이들 原油高價格国들은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油價를 부득이 引下할 수 밖에 없는 궁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미 카르텔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OPEC의 組織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万一에 사우디가 도모하고 있는 보다 低價格에서의 價格單一化(價格統一化)가 이룩된다면, 그것은 석유소비국에 있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減産을 계속하고 있는 OPEC內에서 사우디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事實이 머지않아 그와 같은 價格再統一의 계기를 만들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